

국 제

“美, 對이란 공격 계획 세웠다”

英 BBC 보도... 핵·군 시설 등 목표물 설정 끝나

이란 “핵 개발 계속” 재확인... 중동 지역 전문 고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간 긴장이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

지난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따른 이란의 핵 개발 중단 시한이 2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대 이란 공격 계획이 공개되는 등 중동에 또 다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BBC 방송 인터넷판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수립했다고 20일 보도했다.

BBC 방송이 입수한 비상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공격 목표에는 이란의 핵 시설은 물론 군 시설 대부분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란을 공격할 계획이 없으며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BBC 방송은 그러나 외교 소식통들

의 말을 인용, 미 플로리다주 중부군 사령부의 고위 관리들이 외교적 노력의 대안으로 이란 내 공격 목표물을 이미 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란을 공격할 마땅한 명분이 없다는 것.

BBC 방송의 프랭크 가드너 안보담당 특파원은 이란의 핵 무기 개발이 확인되거나 이라크 주둔 미군에 대한 공격이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란의 입장도 강경하다. 이란은 지난 18일 핵 기술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으며, 혁명수비대는 19일부터 이란 내 16개 주에서 6만명을 동원,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초에도 해군과 공군을 동원해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미국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리처드 달턴 전 이란주재 영국대사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장기적으로 이란 정부로 하여금 핵 무기를 개발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눈은 마음의 창”

과학적 근거 찾았다

눈에서 사람의 성격을 읽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웨덴 오레브로 대학의 마트 라르손 박사는 과학전문지 ‘생물심리학(Biological Psychology)’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눈의 홍채(虹彩)에 있는 구멍(음파)과 선(수축구)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홍채의 구멍과 선들은 동공이 확대될 때 형성된다.

눈 ‘홍채’ 분석하면 성격 읽을 수 있어

라르손 박사는 428명의 홍채를 근접촬영한 사진을 분석하고 각자 성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멍이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온화하고 따뜻하며 사람을 쉽게 신뢰하는 성격인 반면 선이 많은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이라크 안정보다 북핵 제거가 먼저”

■美 외교정책 전문가 100여명 조사

北, 핵 이전 가능성 1위... 위험한 정권 2위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제거를 미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외교 정책 목표로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3~5년내 핵기술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 2월호에 따르면 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가 100여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미국이 향후 5년내 이뤄야할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 목표로 북한의 핵 제거를 꼽은 전문가들이 2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이라크의 안정(17%),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포기 실행(12%), 미사일 방어 시스템 조성(9%), 아프가니스탄의 안정(5%)등을 꼽았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의 73%는 향후 3~5년내 핵기

술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북한을 지목했으며 그 다음은 파키스탄(44%), 이란(40%), 러시아(12%), 인도(2%), 이스라엘(1%), 미국(1%) 등이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장 위험한 정권을 가진 국가로 이란(40%)을 꼽았으며 이어 북한이 35%로 2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미국(9%) ▲파키스탄(7%) ▲사우디 아라비아(3%) ▲수단(2%) ▲중국(1%) ▲이라크(1%) 순이었다.

이 전문지는 미국 전문가들의 75%가 2·13 북핵 합의 전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혀 먹이지 않아 미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하고 북한 정권의 위험성, 핵 이전 가능성 때문에 북핵이 미국 외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 전문지는 따라서 2·13 북핵 타결은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북한에 홍역 창궐... 3천명 감염

국제적십자사 밝혀

지난 해 11월 첫 발병이후 북한 전역의 30개군 지역에서 약 3천명의 주민들이 홍역에 감염됐으며, 지금까지 모두 4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제적십자사(IFRC)가 19일 밝혔다.

제네바에 본부를 둔 IFRC에 따르면, 감염된 북한 주민 3천명 가운데 1천13명이 북한 현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치료를 받고 있으며, 홍역 및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1월 4일 어린이 2명

과 어른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이번 홍역은 작년 11월 6일 김형직 군의 부전리를 포함한 량강도내 일부 지역에서 처음 발견됐으며, 환자들에 대한 임상 증세를 바탕으로 처음에는 풍진(風疹)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가 지난 15일에서야 홍역으로 확인됐다.

이번 홍역은 량강도내 발병지역에서 차단되지 않은 채 지난 3개월 보름여동안 북한 전역으로 확산됐다.

전염병 증세가 나타나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달 26일 전염병

가능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실험 키트들을 북한 보건성에 제공했고, 84개의 샘플 중 77개가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글로불린M’(IgM) 항체들을 확인했다.

북한 보건성은 대대적 백신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7세~45세 연령층의 주민들을 면역시키기 위해 국제적십자사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WHO 등 국제기구들에 500만 투입분의 홍역 백신 제공을 요청했다고 국제적십자사는 덧붙였다.

그러나 가장 홍역에 취약한 7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들은 이미 일상적인 예방주사를 통해 홍역 백신을 맞았다.

/제네바-연합뉴스



‘중동 평화’ 모색 3자 회담
에루살렘에서 중동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자 회담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총리(왼쪽부터)가 19일(현지시간) 에루살렘에서 중동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3자 회담을 갖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중동의 나토 ‘마토’ 생각까

〈MATO〉

미국이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패권 확장을 막기 위해 친미 아랍권 국가들과 집단적인 군사동맹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집트의 시사 주간지 알-야흐람 알-아라비가 1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란에 대한 서방 언론의 공격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며 그 대표적 사례로 시아파

주류 국가인 이란의 위협을 부각시켜 수니파가 주류인 아랍권 국가들과 이스라엘을 미국 주도의 역내 군사동맹으로 묶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들었다.

이 신문은 미국 언론은 중동지역의 현 정치상황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가 출범할 당시 미국이 처한 환경과 비슷하다고

美, 이란 견제 위해 친미 군사동맹 추진

지적하면서 나토를 모델로 하는 중동지역의 군사동맹으로 마토(MATO)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토는 중동 대테러기구를 뜻하는 ‘Mideast Anti-Terrorism Organization’의 머리글자를 합성한 조어이다.

/카이로-연합뉴스

日 ‘美 중군 위안부 결의안’ 반발

아베 ‘소프트 노선’ 시험대

일제의 근대 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됨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배려, 역사인식 문제를 미봉해온 아베 신조 총리의 ‘소프트 노선’이 시험을 겪게 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한·중 양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평소 지론을 일단 접고 주변외교 정책에서 소프트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미 하원의 결의안 제출에 대해 아소 다로 외상이 유감을 표시하고, 일부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서

는 등 정부 여당내 보수파의 반발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여 아베 총리가 취해온 소프트 노선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선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 담화’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입장을 표명만 바 있다. 하지만 담화의 수정을 요구해온 정부·여당내 일부 보수파 사이에서는 이번 하원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수정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쿄-연합뉴스

케네디 암살 직전 새 영상 공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총탄에 맞기 직전의 순간을 담은 새로운 영상이 19일 공개됐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조지 제프리스 등이 박물관에 기증한 8mm 무성 컬러 영상은 총격 90초 전에 촬영된 것으로 재클린 여사

가 군중을 향해 손을 흔드는 장면은 물론 당시 케네디 전 대통령이 입고 있던 코트의 등 부분에 얇은 주름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 암살 의혹을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AP-연합뉴스

Large advertisement for '국채적립' (National Debt Savings) featuring a group of people and text about financial benefits and government bonds.